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시편 145:1-13, 히브리서 4:12-16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 나의 전도·선교를 찾아야 한다.

1. 첫 번째 방법이 말씀회복이다.

- (1)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2) 치유의 능력이 있다.
- (3) 말씀을 붙잡으면 현실, 사실, 진실, 영원한 것, 미래가 보인다.
- (4)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도록 말씀운동을 펼쳐라.

2. 두 번째 방법이 예배회복이다.

- (1)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의 보혈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 (2)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
- (3)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므로, 그 때를 놓치지 말라.
- (4)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 :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누리며 예배를 사모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날, 특별히 주님이 변모하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광경을 보여 주셨던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백성들의 사모함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열었으니 크게 채우시옵소서.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사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미주 총회장님이 오셨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우리를 웃기려고 이야기를 하셨다. 모처럼 한번 배를 잡고 웃었다. 두 내외분이 심방을 갔는지, 밖에 일을 보러 나갔다가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를 집 안에 두고 나왔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큰딸에게 전화를 해서, ‘열쇠를 두고 나왔으니 집에 못 들어간다, 열쇠를 좀 가지고 와라’ 한 것이다. 그래서 딸이 오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기술이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옷핀을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딸이 와서 놀라서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아빠, 전에 도둑놈이었어?” (웃음) 줄지에 도둑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세계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많은 참사랑 가족들이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헌신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자는 것이다. 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자는 것인가? 이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바로 살자 하는 의미가 아니다. 훌륭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개인과 사회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시대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자는 것이다. 지난주에 심주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 않나. 재앙과 저주는 실제로 개인과 가문과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을 자신이 보고 있다고 하셨다. 개인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가문에는 저주로, 세상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와 후대가 재앙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현장을 재앙에서 건져내고,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 길이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20일을 걸어서 팽목항에 갔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백성이라도 되어 달라는 이야기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새 힘을 또다시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한다.

1. 전도·선교 구체화의 방법 (1) : 말씀 회복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1) 말씀운동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이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 마5:18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다. 반드시 성취될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말이다.

(2) 둘째로, 이 말씀은 영혼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며 치유한다고 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병들어있는 모든 부분이 쪼개어지고 드러나고 제거된다는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감정과 심리가 병들어가고 무너져 간다. 자기도 모르게 상체에 잡히고 집착하게 된다. 이게 심해지다가 어느 날 정신에 문제가 와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상태에 있는데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해답인 줄 믿는다. 시119:25에,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골3:7-10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생기가, 저 시체에 들어가라.” 말씀했더니 그 시체가 일어나 군대가 되었다고 했다.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해답임을 체험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시기를 축원한다.

(3)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다. 현실이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사실이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 보인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다(사40:8).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영원한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계1:3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미래가 앞당겨져서 보인다는 것이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파묻히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4)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절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말씀운동이라고 한다. 말씀 속에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누리고 체험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무브먼트(movement)라고 한다. 운동으로 가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전달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신6:4-9에 보면, 이것을 이마에도 손목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여서, 계속 보고 기억하도록 만들라고 했다. 시119:43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후대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축복을 받으라. 금년 우리의 주제가 언약을 후대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나와 우리 후대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계속 암송되고 읽혀지고 기억되고 암송되어 각인이 되도록 하라. 축복 받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말씀 회복이 되어야 한다. 말씀운동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어나야 한다. 내가 목사이지만 가정에베를 잘 드리지 못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예배 인도할 일이 너무 많지 않다. 집에서도 또 인도하려고 하니깐, 내 마음에, 이것은 집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집사람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다. 그것만은 자기들이 한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글을 깨우친 때부터 내가 한 달 사회하고, 아내가 한 달 사회하고, 한글을 깨친 큰아이에 한 달 사회를 하게 했다.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게 했더니, 어느 날에는 종이를 찢어서 주보를 만들어 왔다. 가정예배 주보다. 목도, 찬송 몇 장, 성경 어디, 기도는 누가, 마지막 주기도. 이렇게 써서 하나씩 나눠 주더라.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더니 중고등부 주보를 만들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육인지 모른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말씀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한다.

2. 전도·선교 구체화의 방법 (2) : 예배 회복

두 번째다.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를 구체화할 방법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다. 첫 번째는 말씀 회복이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승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14절~16절을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1) 첫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중에서, 오늘 14절에 보면, 특히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다. 전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다. 그 중에도, 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큰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결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는 근본적, 본질적으로 해결되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예배다. 엡2:13에 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했다. 골1:20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누리야 한다.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배 승리하는 답은 그리스도의 피를 집요하리만큼 강조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 힘이 아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다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 데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다.

(2)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된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다. 15절에 말씀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아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행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성령충만해지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성령충만해지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간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번 걱정하시면 지구는 끝이다.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일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지금도 해결하고 계신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예배다.

(3) 세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시간이다. 고후6:2에 보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했다. 이 날을 놓치면 안 된다.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이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한 주간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시려고 세운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 무능한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 반드시 이 응답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한다.

가만히 류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보면, 류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거부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제자들만, 요원들만 모였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류목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자기 일보다 류목사님을 위해 더 먼저 기도한다. 그게 35만 명이다. 얼마나 신이 나겠나. 그러니까 서기만 하면 말씀이 나온다. 거미가 실을 술술 뽑아내듯이 말씀이 계속 나온다. 요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말씀 들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옥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자기도 나중에는 놀라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놀라더라. 어떤 분은 자기가 설교를 해 놓고, 자기 설교 후시 녹음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한다. 그럴 때가 있다. 스펀전(C. H. Spurgeon)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고 영력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 가보니까 교회 지하실이 있는데, 캄캄한 곳에서 별때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스펀전 목사님을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 영력을 목사님에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영력과 설교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맞지 않나. 젓 먹이는 엄마는 잘 먹어야 한다. 어려서 보니까 모유가 잘 안 나올 때는 돼지족발을 사다가 먹더라. 그러니까 모유가 많이 나왔다. 다 그런 원리가 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란다.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간 죽 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오늘 은혜를 받으면 한 주간 죽 거뜬히, 건강하고 담대하게 씹씩하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실패해 버리면 어떻

게 되나? Good에서 하나님, God을 빼 버리면 o(0)이 된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o(0)에도 God, 하나님만 계시면 Good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찾아내는 축복이 주일 예배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다른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은혜 받으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도망간다. 행복이 오고 감사가 찾아온다. 은혜가 온다.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 행복하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은혜 못 받으면 바짝 말라버리게 된다.

(4)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응답을 받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도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처참한 사람이 된 것이 가릇유다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목회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 시체는 땅에 떨어져서 처참하게 망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아시기 바란다. 중직자 여러분은 특히 기억하라. 중직이라는 직책이 은혜 못 받게 되는 통로가 되면 안 된다. 모자를 벗어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라. “하나님, 저는 은혜 못 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정울, 직장을,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모하라. 요4:23-24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다. 렘29:12-13에 보면,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시면 내가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예배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후대에게 임하는 체험을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 이번 주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다. 말씀 회복, 예배 회복의 열쇠는,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누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오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 말은,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스스로 자꾸 보좌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회개하고, 보좌를 차지하려는 욕심과 추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앞으로 평생 예배시간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체험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한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네 시간을 먼저 가야 한다. 새 구두를 신고, 머리를 10만 원 짜리로 다시 하고, (웃음) 양복도 가능하면 새로 맞추고, 가서 잠깐 보는데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하면서 예배시간 5분 후에 온다.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러 올라오면 본당이 반도 안 왔다. 장로님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나. 기도하시다가 시험 든다. 여러분, 왕을 버려 가는 마음으로. 성전은 왕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야 한다. 5분 만 먼저 출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죄송하다.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정말 격려하고 축복만 하고 싶은데, 정말 힘만 드리고 싶은데. (웃음) 힘 얻으시기 바란다. 예배 회복, 말씀 회복의 주역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기적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 주시고, 벌레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 자녀, 이웃이 보게 되기 때문이오니, 이런 일이 이번 주 우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